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무배당 변액유니버설보험직접형 / 무배당 S-VIP(RedZone) 변액유니버설보험 / 무배당 우리아이변액유니버설보험 / 무배당 New100세플러스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스텝업 플러스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플러스 변액연금보험연계재원미보충형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 / 무배당 VIP 변액연금보험연계재원미보충형

[펀드수익률 현황]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0.19	-4.24	-6.90	-3.51	21.18	32.99	23.32	83.58
비교지수 대비 성과	(0.01)	(0.19)	(0.58)	(1.60)	(5.17)	(7.39)	(10.43)	(31.57)
비교지수(벤치마크)	0.18	-4.43	-7.48	-5.11	16.01	25.60	12.89	52.01

주)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200 X 95% + CALL X 5%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추적오차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1년
추적오차	0.67	0.73	1.36

주) 추적오차란 일정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추종하는 특정 비교지수의 변동을 얼마나 충실히 따라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비교지수 수익률 대비 해당 인덱스펀드의 일간 수익률 차이의 표준편차로 기재합니다. 추적오차의 수치가 적을수록 해당 기간 동안 인덱스펀드가 비교지수와 유사하게 움직였음을 의미합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 자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전기	-2,091	0	0	-159	-123	0	15	-96	-2,454
당기	157	0	0	12	-7	0	13	-85	89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명칭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투자위험등급	고위험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87478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08.09.01
운용기간	2018.07.01 ~ 2018.09.30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자산운용회사	한화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국민은행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판매회사	푸르덴셜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펀드는 KOSPI200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운용목표로 하는 펀드입니다. KOSPI200 지수 수익률을 추종하기 위해 자산 중 50% 이상을 KOSPI200 구성종목에 투자하고, 나머지를 유동성 자산 및 지수 선물 등에 투자합니다. 주식자산 구성 종목은 KOSEF200 및 삼성전자, 포스코 등 KOSPI200의 종목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채권의 투자 비중을 배제함으로써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수익을 도모하는 인덱스주식형 투자전략입니다.		

>>> 재산현황

(단위 : 백만원, 백만좌, %)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 총액 (A)	53,451	53,291	-0.30
부채 총액 (B)	272	236	-13.13
순자산총액 (C=A-B)	53,179	53,055	-0.23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9,021	28,900	-0.42
기준가격 ^{주)} (E=C/D×1000)	1,832.42	1,835.81	0.19

주)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에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결과 및 운용계획

>>> 지난 분기 시장 흐름 및 운용 경과

3분기 글로벌 증시는 선진과 신흥 지역간의 차별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경기 지표 호조로 미국 증시는 재차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일본 증시 또한 엔화 약세에 기반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신흥국은 무역 분쟁의 당사자인 중국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 중이며 8월 중반부터 터키 금융 불안이 신흥국 환율 위기 우려를 자극해 이머징 국가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 증시는 중국,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아 G2 무역 분쟁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고용 약화와 내수 부진 등 국내 경제 전망 또한 혼탁하다는 점이 증시에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연내 저점을 갱신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정부의 규제 우려가 완화되었으며 5G 도입에 따른 성장 동력 확보가 예상되는 통신 업종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회계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제약/바이오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며 분기를 마감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 환경 속에 국내 증시는 국내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하향되는 가운데, 기업 이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의 업황에 대한 우려로 부진을 보이며, 이익 모멘텀과 관련된 지표들의 지속적인 부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분기 중 진행된 외국인 수급 개선이 성장

주 또는 고배당주에 집중되며, 밸류에이션과 관련 지표들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 다음 분기 시장 전망 및 운용 계획

미중 무역분쟁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럼에도 시장의 반응은 둔감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어느 정도 내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9월 FOMC에서 금리는 25bp 인상되었지만 완화적인 통화정책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장기 중립 금리를 3%로 제시한 것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며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해석 됩니다. 더불어, 3분기 실적이 지수 반등을 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월까지 수출 성장세가 강화되었던 점을 생각해 보면 실적이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 기대를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12 분기와 비교해 평균 환율이 높아 수출기업의 채산성이 개선된 점을 감안하면 3분기 실적 시즌은 비교적 편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향후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실적 개선 업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의 불확실성, 미중 관계 악화 등 글로벌 여러가지 주식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이슈들이 시장의 상승 탄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수의 강한 상승보다는 완만한 상승을 염두하여 동 분기 보수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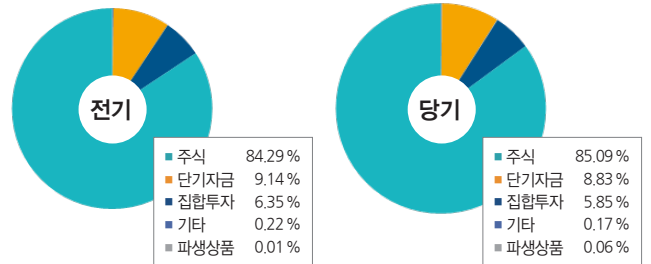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단기 자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장내	장외			
KRW	45,347	0	0	3,117	32	0	4,705	91	53,291
%	(85.09)	(0.00)	(0.00)	(5.85)	(0.06)	(0.00)	(8.83)	(0.17)	(100.00)
합계	45,347	0	0	3,117	32	0	4,705	91	53,291

* (): 구성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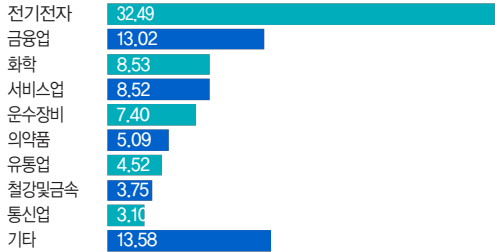
>>> 자산별 구성비중



>>> 주식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전기전자	32.49	6	의약품	5.09
2	금융업	13.02	7	유통업	4.52
3	화학	8.53	8	철강및금속	3.75
4	서비스업	8.52	9	통신업	3.10
5	운수장비	7.40	10	기타	13.58



주)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1	주식 삼성전자	17.44
2	단기 은대(국민은행)	8.83
3	주식 SK하이닉스	4.25
4	집합투자증권 ARIRANG 200	4.15
5	주식 셀트리온	2.43
6	주식 POSCO	2.16
7	주식 삼성전자우	2.03
8	주식 KB금융	1.96
9	주식 현대차	1.95
10	주식 신한지주	1.87

주) 환율, 금리 등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보유중인 파생상품 종목은 제외하였습니다.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단위 : 주, 백만원, %)

구분	종목명	보유수량	평가금액	비중	발행국가	통화	업종	비고
주식	삼성전자	200,087	9,294	17.44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SK하이닉스	30,984	2,265	4.25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셀트리온	4,365	1,296	2.43	대한민국	KRW	의약품	
	POSCO	3,914	1,153	2.16	대한민국	KRW	철강및금속	
	삼성전자우	28,597	1,082	2.03	대한민국	KRW	전기전자	
	KB금융	19,274	1,045	1.96	대한민국	KRW	금융업	
	현대차	8,024	1,039	1.95	대한민국	KRW	운수장비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

(단위 : 좌수, 백만원, %)

구분	종목명	종류	자산운용사	설정 원본	순자산 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집합 투자 증권	ARIRANG 200	수익증권	한화자산운용	2,344	2,212	대한민국	KRW	4.15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단위 : 주, 백만원, %)

구분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단기 자금	예금	국민은행	2008.09.01	4,700	1.15		대한민국	KRW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단위 : 계약, 백만원)

구분	종목	매수/매도	계약수	미결제약정금액	비고
장내파생상품	삼성전자 F 201810 (10)	매수	3,231	1,501	

주)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개별계약등의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비용현황

>>>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21	0.04	20	0.04
판매회사	59	0.11	57	0.11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1	0.00	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3	0.01	3	0.01
보수합계	85	0.15	81	0.16
기타비용**	1	0.00	1	0.00
매매·중개 수수료	3	0.01	2	0.00
조각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3	0.01	2	0.00
증권거래세	9	0.02	2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 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총보수,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주1)}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주2)}	합계(A+B)
전기	0.6165	0.0248	0.6413
당기	0.6159	0.0215	0.6374

주1) 총보수 · 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주2)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5.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단위 : 주, 백만원, %)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주)}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23,148	1,042	15,954	802	1.80	7.14

주)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을 추이

(단위 : %)

2018년1월1일 ~ 2018년03월31일	2018년04월1일 ~ 2018년06월30일	2018년07월1일 ~ 2018년09월30일
6.90	6.17	1.80

6. 공지사항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플러스알파인덱스주식형 펀드의 자산운용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국민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푸르덴셜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 푸르덴셜생명보험(주) / <http://www.prudential.co.kr> / 02-2144-2000
 금융투자협회 / <http://dis.kofia.or.kr>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 <http://www.kfia.or.kr>